

여수 웅천지구, 변방 어촌에서 명품도시로 '우뚛'

2·3지구 막바지 공사... 10년만에 위용 드러내

해양중심 레저·교육·의료 등 중심지 역할 수행

불과 수년 전 여수 외곽 어촌에 불과했던 웅천지구가 세계4대 미항 여수의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부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4년 1단계 사업의 첫 사업을 뜬 후 내년 상반기까지 2·3지구 대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점차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여수시는 4일 "웅천지구는 가막만

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핵심 생활권인 학동과 여서·문수지구와 지리적 중간지대에 위치해 정주여건과 접근성이 좋아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수세관을 비롯해 국정원, 노동청, 통계청, 대한지적공사, 시립도서관, 소방서 등 공공서의 순차적인 웅천지구로 이전, 행정의 새로운 중심

축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교육특구 사업 중 하나인 에듀파크(국제교육센터)도 이곳에 동지를 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내권 중·고교가 웅천지구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명품화군 지구로 떠오르면서 배후인 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

또 여수 최대 규모 생태공원인 웅천공원(가칭)과 수백 척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등이 조성되면 여수의 대표 휴양지구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교육, 문화, 휴양, 관광, 레저가 복합된 국제해양관광러져 도시로써 불모를 마련한 셈이다.

이는 뛰어난 접근성과 주거·상업 여건 등 도심으로써 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주거밀도는 25%로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원·녹지비율을 32%로 해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 관계자는 "웅천지구의 장점은 균형성을 갖춘 단지 계획"이라며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개발로 자연지형의 틀을 깨지 않고 개발의 효율성은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곳에는 웅천 지엘아파트 2370세대가 입주할 완료한 데 이어 지엘 2·3차 1300여 세대 역시 2015년

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

외곽지역에는 단독주택 432세대도 점차적인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호텔·콘도미니엄 등 고급 관광·숙박시설과 각종 의료시설, R&D산업체 등도 입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웅천신도시는 특화된 개발컨셉으로 해양중심 휴양 문화, 레저, 교육, 의료산업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세계 4대 미항 여수와 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신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통 때배 타고 어디까지 가볼까"

여수시 삼산면이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 거문도 유림해수욕장에서 운영중인 전통 때배 무료체험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말까지 체험이 가능한 전통 때배는 지역에 따라 티위, 터우, 테, 때배 등으로 불리며, 근해에서 해초 채취와 자리돔 잡이 낚시를 하는데 주로 활용돼 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남도 보물섬으로 오세요"

보성 울포해변서 카약·캠핑 페스티벌- 참가비 무료

보성군 울포 솔밭해변에서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2013남도보물섬 카약·캠핑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보성군이 후원, (사)대한레저스포츠협회회가 주관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의 우수해변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울포솔밭해변은 전국 3대 해변 중 한곳으로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오토캠핑리조트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남도지역 대표 여름 피서지로 유명하며, 인근에 위치한 회천수산물위판장에서는 각종 수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카약오



리엔터링, 가족단위 캠핑, 캠핑쿠잉대회, 풍등날리기, 문패만들기, 녹차카테일 체험, 녹차떡만들기, 다트던지기, 포토 트래블, 힐링존, 해수욕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페스티벌 참가비는 무료로, 국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가족단위로 선착순 100팀(1팀당 4명)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천년의 프리포즈-자연의 입맞춤'

지리산 방문의 해 슬로건 선정

내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맞아 곡성 등 지리산권 7개 지자체가 실시한 슬로건 공모에서 '천년의 프리포즈, 자연의 입맞춤-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가 최우승자에 선정됐다.

우수작은 '걸어요! 돌레길 즐겨요! 지리산권 2014', 장려작은 '멋진 만남 행복 여행 2014 지리산권!'과 '지리산의 발길따라, 문화의 향기따라'가 각각 뽑혔다.

이번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모두 438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241건(55%), 지리산권지역이 43건(10%), 타지역이 154건(35%) 등이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슬로건 공모를 통해 2014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가 컸다"며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방문의 해 관련 각종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순천시, 내일 전국 최초 벼 2기작 모내기

10월 말 수확... 조기재배 벼는 추석 전 판매

순천시는 4일 "오는 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벼 2기작 모내기 행사를 해 통면 신대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생종 벼 수확 후 재배하는 택사 가격 하락에 따른 작목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 2기작 재배 가능성을 실현 해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조생종 벼 2기작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ha 면적에 극조생 품종인 기가라397호와 전남1호 품종을 시험 재배,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방침이다.

벼 2기작 재배는 지난 4월20일경 모내기를 하고 7월31일 수확한 논에

7월20일경에 못자리를 준비해 8월6일 모내기 실시 후 10월 말에 수확하는 과정을 거친다.

순천시에서는 금년에 120ha 조기재배 벼를 8월 중순경 수확해 추석명절이전에 '하늘아래 첫 쌀 순천쌀' 브랜드로 판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해살을 비롯한 순천매실, 미인단감, 승주 귤, 주안인삼, 외서 딸기육묘, 낙안 오이, 도사 청장미나라 등 13개 품목의 특산물 물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전북

정읍·순창 민원처리 빨라진다

전화·방문상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

정읍시와 순창군 등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민원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스톱' 처리 체계를 서둘러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순창군이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방문상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이나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이다.

이번 조치로 구체적인 서류준비 없이 전화나 방문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문의가 있을때도 민원과의 컨트랙트 기능 수행부서로 지정하고 접수에서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1일 청원원례조회 시 전화·방문상담 복합민원 처리요령을 비롯한 민원응대요령, 정보공개처리요령,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인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종합민원과 내외 공장설립, 건축, 위생,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6개 핵심 인허가 창구를 개설하고 기존의 세무창구, 차량등록 창구, 지적창구, 건설기계 등록 창구와 함께 종합적인 민원업무를 새롭게 선보인다.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민원실 내에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져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종합민원과 내에서 상담 및 접수, 일괄보완, 처리로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담, 보완, 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우리 농산물 지킵니다" 순창군 외래해충 방제

순창군이 외래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인계면 중산리 등 4개 마을에서 지난 1일 폭염 속 농동방제를 실시했다. 군은 전국적으로 발생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에서 부화하는 시기인 지난 5월 1차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정읍시립농악단, 15일 '희희락락' 연희콘서트

정읍시립농악단 연희콘서트 '희희락락'이 오는 15일 오후 내장산위터파크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시립농악단이 화려하고 뛰어난 기예와 흥겨운 가락을 선사할 공연에는 시립정읍사육아단(무용부)이 찬조출연해 멋진 춤사위도 펼칠 예정이다.

공연프로그램은 모듬북, 앉은반 설장구와 사물놀이, 창작무 '눈물꽃 필 때까지', 사물판굿, 대동한마당 등이다. 모듬북은 음이 다른 여러 가지 크기의 북을 가지고 역동적인 동작과 가락을 보여주는 작품을 말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지리산허브밸리축제 지역 시내버스 개통

지리산허브밸리축제가 열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마을에 시내버스가 지난 1일 개통됐다.

하루 2차례 운행되는 이 시내버스로 인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불편을 덜게 됐다.

운봉읍 용산마을은 지리산 허브산업의 메카로 봄 바라봉 철쭉축제, 여름 허브&블랙푸드축제와 물축제, 겨울 눈꽃축제 등 해마다 70~80만명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전국 제일의 세계 절 축제마을이다.

이번 개통식에는 박상성 용산마을이장과 주민 50여명, 운봉읍장, 시의원 등 관계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부안군, 해기사시험 8일 수험서 실시

부안군은 4일 "오는 8일 2013년도 임시 제4회 해기사시험을 부안수협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부안수협에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의뢰, 부안 등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 내 선박조종사면허취득 출장교육을 수료해 교육훈련이수증을 소지한 6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 면접시험을 거

쳐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6일까지 부안군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부안군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 부안 등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1년에 1회 이상 출장교육 및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 취득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iy0681@

전주시 시내버스 일부노선 오늘부터 개편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완공으로 시내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노선을 5일부터 개편한다.

30개 노선 76대 버스가 개편 대상이다. 우선 전북혁신도시에 이달 초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들의 편의를 위해 72번 버스가 신설된다. /부안=장재용기자 jiy0681@

또 기존 삼천동 종점(옛 통계청) 노선은 출자동 비전대(14개 노선 53대)와 삼천동 전주가족랜드(5개 노선 13대)로 종점이 조정, 분산된다.

4개 노선 6대의 버스가 전북대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대 북문(예술대 부근)까지 오간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전주에 오면 허브향이 솔솔~

휴가철 맞아 관광객·시민 위한 꽃거리 조성

전주시는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상쾌한 허브 향기를 선사하기 위해 꽃단장을 마쳤다.

〈사진〉 시가 이번 여름 꽃단장에 활용하는 꽃은 허브 종류인 캔들플랜트와 맨드라미, 메리골드, 안젤로니아, 코리우스 등 5종 21만본이다.

이 꽃들은 지난 5월부터 종자로 파종돼 전주시양묘장에서 물주기, 비료주기, 온도관리 등의 생육관리를 통해 재배된 것이다.

특히 캔들플랜트는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잎을 가진 허브식물로, 잎을 살짝 건드리면 상쾌하고 깨끗한 향을 발산하고 모기를 쫓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추천대교, 싸전다리, 서곡교 등 주요 교량 4개소에는 기존의 식재 패턴을 탈피해 캔들플랜트와 한련화 식재로 도심의 삭막한 철구조물을 아름다운 꽃벽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